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75>

말이 짧아야 진실에 다가서니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일구(一句)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무엇을 말하는가?”

問 如何是一句 師云 道何?

일구란 근원에 통한 한마디 말이다. 혹은 근원을 지시한 말이라 해도 된다. 선사들은 많은 말보다는 단 한마디로 도의 근원과 우주를 관통한 진리를 표현하려고 한다. 말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중 진실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주 선사의 일구는 무엇일까? 학승이 궁금해서 물었다. 그러자 조주 선사는 “무엇을 말하는가?”하고 한마디 툭 던지고 말았을 뿐이다. 지금까지 나온 조주 선사의 뜻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면 이 말이 기가 막힌 조주의 일구인 것을 알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일구에 대해서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조주 스님처럼 말하지 않고 다음처럼 말하겠다. “영리한 자라면 알아있기 힘들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일구(一句)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양구(兩句)이다.”

問 如何是一句 師云 兩句

도(道)의 세계를 표현한 일구에 대해서 조주 스님은 앞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말했지만, 여기서는 양구(兩句)라고 말했다.

선(禪)은 두 마디를 싫어한다. 두 마디 세 마디로 설명이 늘어나면 본뜻과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본뜻을 안다면 한 마디도 너무 긴 표현이다. 그래서 선사들은 할과 방을 사용하지만 그것도 알고 보면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여기서 조주 선사는 일구는 곧 양구라고 말했다. 양구는 이미 설명이 길어졌을 뿐더러 결국 선악·시비·장단을 갖추게 되므로 도의 표현과는 아주 멀어진 것을 말하는데 아무리 적절한 일구라 해도 또한 적합하지 못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조주 스님의 양구에 대해서 나는 “나비는 비상할 줄만 알지 걸어 다니지는 못한다”로 평하겠다.

학승이 물었다.
“오직 선존 한 분만 선지식이라고 말한다면 어떨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악마의 말이다.”

問 唯佛一人是善知識如何 師 魔語

조주 선사는 지혜가 출중하고 뜻이 크데다 변재까지 갖춘 터라, 특히 사미 때에 이미 남존 스님

으로부터 그 그릇이 범상치 않음을 인정받았다. 본(조주록)에서 나온 대답들을 보면 조주 선사는 학승들의 질문에 언제나 막힘없이 술술 대답하고 있는데 모두 기상천외한 것들이다. 제자들은 조주 선사의 이러한 점화를 보고 평상시 대답을 옆에서 기록해 두었다.

그래서 이 《조주록》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그중 《조주록》 하편은 대략 110세 전후의 대답들을 기록해둔 것이다. 내용은 상편보다 더 쉽지만 뜻은 이미 도의 깊은 것을 드러내기도 남는 것들이다.

조주 선사는 부처님보다도 더 오래 산 붓다이다. 붓다들은 나이가 들면 노년에 더 진한 맛이 나는 법을 설했다. 석존의 대승법도 그러하고, 여기 조주 선사의 선문답도 그러하다.

학승이 조주 선사에게 “오직 석가모니 한 분만 진정한 붓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 조주 선사는 바로 잘라 말했다.

“악마의 말이다.”
붓다라는 말은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한국에 와서 ‘붓다’는 ‘부처’로 발음된 것일 뿐 그 의미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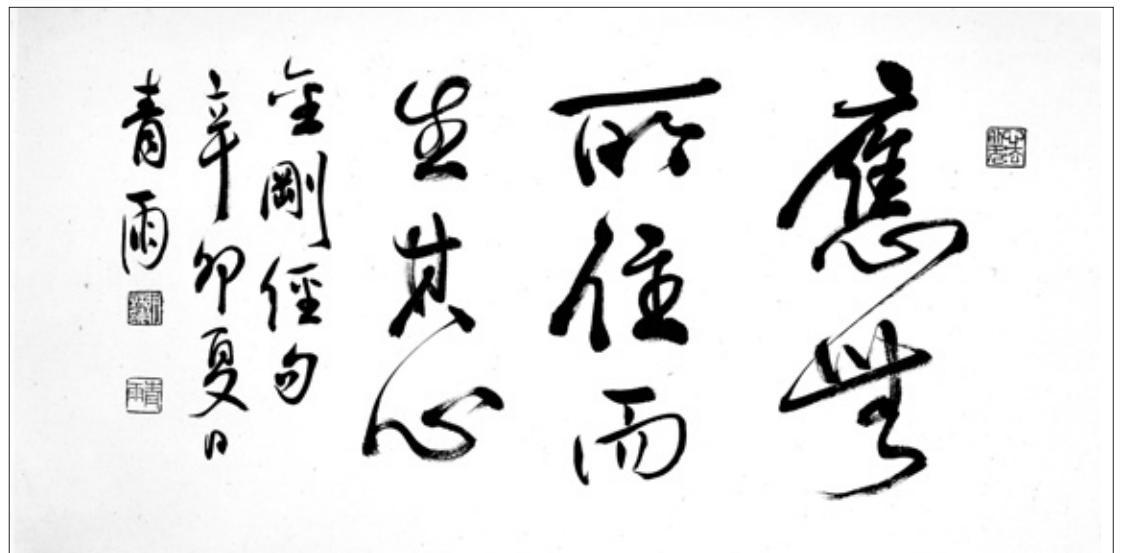
석존 이후 깨달은 붓다는 수없이 많았고, 지금도 많고 앞으로는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부처는 단 한 사람뿐인데 어찌해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가?” 하고 묻는다면 그는 악마의 사주를 받는 자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운상민의 서화산책 <금강경> 中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應無所住 而生其心(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금강경>

應: 응할 응
所: 바 소
住: 살 주
其: 그 기

청신금강경소응무소주이생기심일구



서예가·동아미술상 수상

선어록 해제

한국선과 선어록 25

운봉선사심성론(雲峰禪師心性論)

신통과 묘용은 일상 그대로이다

《운봉선사심성론》은 조명기 박사에 의해 <불교학보> 제7집에 소개된 이후로 <한국불교전서> 제9권에 국립도서관소장본(강희 25년, 1686년)이 수록됐다. 이 외에 고려대 소장본이 전한다.

운봉의 전기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바가 없다. 그 법계가 사암재영의 <서역중화해동불조원류>에 의하면 청허휴정 - 편양언기 - 풍담의심 - 운봉대지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운봉선사심성론>의 본문에 의하면 서문과 부록으로 수록된 대목에서 ‘운봉의 제자 대지’라는 표현이 있어서 운봉과 대지가 동일인이 아닌 사제기간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어찌됐든 운봉은 청허의 제4세로 풍담의 문하인데, <운봉선사심성론>의 부록 부분에는 운봉을 청허의 후예인 우화설청의 상족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우화설청의 법을 이은 것으로도 간주된다.

청허의 후예로 우화설청 법 이은 운봉 “사람이면 도를 멀리하는 것 자각해야” <기신론> 통해 마음의 구조 관해 설명 “심이 거울의 몸체라면性は 거울의 빛”

국립도서관소장본에 의하면 전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자장(自章) - ‘심성론서’ (1686) / 대지(大智) - 심성론의 대의 / 운봉의 ‘심성론’ 본문 / 심성후발(心性後跋) / [부록] / 간병후서(兼病後序) / 감계동참발원문 / 경책문인 / 시문」

이 가운데 본문은 대지가 ‘심성론’의 대목을 들어 조목조목 해설한 것으로, 그 대의를 해석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론의 증거를 내세워 ‘심성론’의 주장을 옹호·수용한 것이다.

후발 부분은 일심법을 내세워 제법에 대한 의심을 없애주고, 불성교를 인용해 그 도리에 대한 논의를 증명한 것이다.

대지는 우선 정갈하게 세숫대야에다 손을 씻고 향을 놓고 삼가 운봉 선사의 ‘심성론’에 대한 경의를 보이는 서문을 지었다. 서문에서 대지는 심성(心性)에 대해 각각 심은 보고 듣는 감각을 초월해 태허를 포함하는 공적한 심체(心體)로 간주했고, 성은 방소를 초월해 법계에 두루하는 광대한 영통의 성용(性用)으로 간주했다.

그 심체는 법체의 중생심으로 향사와 같은 묘용을 머금었고, 성용은 일상생활을 벗어나지 않고 늘 우리네 삶 속에서 여범하게 작용하는 모습으로서 여래장에 비유했다.

이하 대지는 운봉의 ‘심성론’의 본문에 대해 심·성을 해석한다. 먼저 주역의 도리를 언급하고 난 이후에 심·성의 도리를 논한다. 심은 <화엄경>의 공적진심(空寂真心)이고, <능엄경>의 보각진심(寶覺真心)으로서 영명하고 청정한 일법계심이라는 규봉

의 말을 수용한다.

이러한 진심은 증감이 없음을 <기신론>의 교의를 인용하고, 본래성불의 근거를 언급해 부처와 중생이 동일한 법성임을 말한다. 그 법성은 대영각(大靈覺)으로서 그것을 함유하고 있는 중생 그대로가 무량수불이므로 신통과 묘용은 일상에서 불 길고 나무 하는 그대로임을 말한다.

그것이 해능에게서는 일물로 나타나고, 대해한테서는 파도와 물의 관계임을 말한다. 그러므로 도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도를 멀리할 뿐임을 자각 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중생 자체와 불성과 심의 자성이 다르지 않다는 화엄의 도리를 증거로 내세운다.

또한 오행의 사상은 태극을 근본으로 삼고 있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심과 경의 일체만법은 무극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말한다. 이처럼 심·성에 대해 유교와 불교의 도리가 다르다는 것을 규봉의 “원·형·이·정은 하늘의 덕성으로서 일기로부터 시작되지만, 상·락·아·정은 부처의 덕성으로서 일심을 근본으로 한다”는 말을 인용해 주장한다.

그러나 보다 치밀한 심의 구조에 대해서는 <기신론>의 교의를 수용해 심체인 일심을 근본진여와 수연진여로 분별하여 <원각경> 및 <능엄경>에서 말하는 부처님은 다시는 미혹하지 않는다는 도리까지도 다른 것이 아님을 말한다.

이와 같이 “심은 영명하고 청정한 일법계심이고, 성은 선각과 보광이 원만한 성이다”는 심·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제시한다. 곧 마명의 출전위와 재전위의 여래장, 현수의 오법을 경증으로 내세우며, 종밀의 본각진심 및 만법과 미오와 행덕의 근원, 무착은 문수가 본래부터 문수였듯이 자신도 본래부터 무착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근원적인 심·성은 반드시 체험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다. 이하에서는 문답을 설정해 보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해명한다. 문답은 재전위와 출전위의 여래장, 각과 불각의 성격, 색신과 법신의 관계를 논한다.

이를 다시 <대승기신론>의 제명을 통해 대승과 기신으로 나누어 대승은 본각이고 기신은 시각으로 설명한다.

대승은 믿음의 대상으로서 본각진성이고, 기신은 믿음의 주체로서 마음이라 말한다. 나아가서 무명번뇌와 반야의 속성에 대해 선어록을 언급해 문답으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대지는 [후발]을 통해 결론적으로 일심의 법과 불성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심이 거울의 몸체라면 성은 거울의 빛에 비유해 각각 심은 일심이고 대도이며, 성은 공적진심으로서 달마가 전승한 것도 바로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육 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부교육원

창원 055-543-6155 호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산 051-441-0111
울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구 053-566-1116 해운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 (42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1년 9월 5일(월요일) 오후 3시 (목탁치침)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CD우송)
- 강의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2. 교육내용

-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중성 등)
-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 ③ 현 공 편 (삼보통칭, 중단퇴공, 불공시식, 관음, 지장, 신중청 등)
- ④ 제의식편 (천도제, 49제,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 등)
-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접수 또는 방문접수 (우편, 팩스 접수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법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